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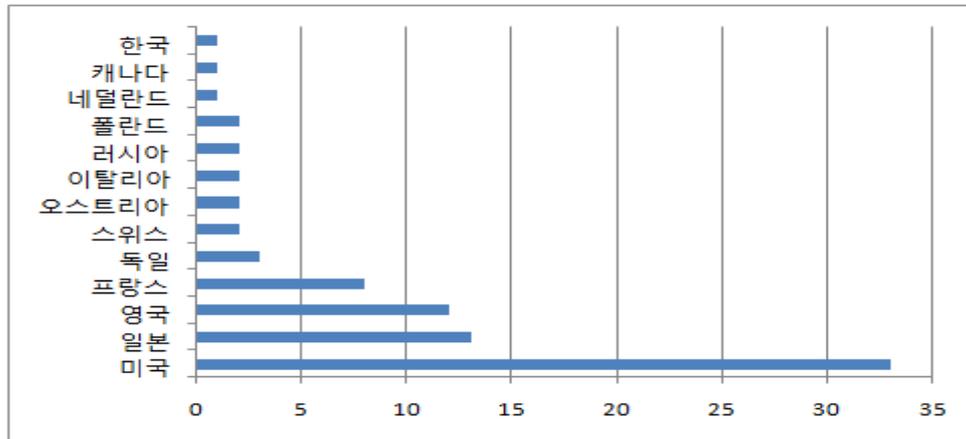
일본판 노벨상 ‘교토상’

‘일본의 노벨상’으로 불리는 ‘교토(京都)상’이 국제적 명성을 얻고 있다. 일본에서 ‘살아있는 경영의 신’으로 존경받고 있는 이나모리 가즈오 교세라 명예회장이 사재를 출연, 제정한 상이다.

□ ‘교토상’이란

- 교세라(京セラ)의 창업자 이나모리 명예회장이 설립한 이나모리 재단이 1985년부터 시상해 올해 25회를 맞이함
 - * 이나모리 명예회장이 교토상을 제정한 것은 ‘인간과 세상을 위해 공헌하고 싶다’는 경영철학에서 비롯됨
- 교토상은 엄격한 심사로 정평, 첫째 후보를 추천하고 2년째 심사에 이어 3년째 선정에 이르기까지 심사에 3년이 걸림
 - * 철저한 검증을 거침으로 7회까지는 과학기술이 앞선 미국, 유럽에서 상을 휩쓸었으며 수상자 81명 가운데 아시아에선 일본인이 13명이고 한국계는 미국 국적의 故 백남준이 유일함
 - * 올해 교토에서 열린 시상식에서는 기초과학, 첨단기술, 사상예술 등 3개 부문에서 일본인, 영국인, 프랑스인 등 4명이 수상(2009.11.10)
- 이나모리 명예회장이 사재를 털어 만든 기금은 600억엔(약8,000억원)에 달해 노벨상 기금(약 500억엔)을 앞지른 수준
 - * 부문별 수상자는 상금으로 50만 달러(약 6억원)를 받음

국가별 교토상 수상자 (단위: 명)



□ ‘교세라’ 이나모리 명예회장은

- 교세라는 전자제품, 의학기기, 자동차, 기계부품의 필수품인 세라믹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보유, 일본의 2대 이동통신 사업자인 KDDI를 창업
 - * 교세라는 59년 설립 당시 다른 회사의 공장 한 구석을 빌려 종업원 28명의 벤처기업으로 출발
 - * 올해로 창립 50주년을 맞은 교세라는 매출액 1조1,285억엔(약 15조원), 종업원 5만9,500여명, 자회사 219개를 거느린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
 - * ‘성실과 열의’ 를 갖고 묵묵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 성장했다는 이나모리 명예회장의 경영 철학을 추종하는 경영자가 많아지면서 사설 경영 스쿨 ‘세이와주쿠(盛和塾)’ 를 설립, 마쓰시타정경숙을 능가하는 인기

- 54년 만의 정권교체로 민주당이 집권하자 예산공개심의(행정쇄신회의) 민간위원으로 추대되어 정부 예산과 낙하산 인사 개혁에 메스를 들이대는 역할을 맡음

<참고 문헌>

‘살아있는 “경영의 신” 이나모리 교토상, 일본판 노벨상으로 키워’ (중앙일보, 2009.11.12)